



김수환 추기경 “고통받는 감염인은 예수님과 같으시다” 감염인 추모미사를 올리며...

☞ 메리 엘리스 · 수녀 / 여성쉼터 대표

가을빛도 완연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감염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어느덧 한가족이라는 마음이 가득히 자리하게 되었다. 한가족이라면 살아있을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임종하는 순간은 물론 돌아가실 때에도 그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이런 추석명절이 다가올 때면 모두들 가족의 울타리를 떠올리게 되듯이 우리도 돌아가신 그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가족을 생각하게 되는 특별한 전통이 있는 것처럼 추석이 되면 그때를 기억해 돌아가신 감염인 형제자매들을 위한 연미사를 함께 나누고 있다. 이 행사는 가톨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가톨릭식으로 미사를 하고 한국전통식으로 제사를 함께 지낸다.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역시 십자가족들은 물론, 봉사자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임직원, 감염인의 가족 등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다.

무엇보다 이번 추석미사 때는 우리들 모두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웠던 것은 우리나라의 어른이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오셔서 직접 미사를 집전하셨던 것이다. 평소 감염인들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많았던 추기경께서는 이 사목이 시작되던 초기부터 십터를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고 계속해서 남모르게 많은 사랑을 나눠주고 계시다.

우리 감염인들의 마음을 잘 아시던 추기경께서는 사회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셨고 미사를 직접 집전하시는 모습에서 그분의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일년에 한번 다 같이 모이는 자리지만, 정성되어 차린 제단 앞에 길게 병풍을 늘어놓고 돌아가신 분들의 위패와 사진들을 모시고 돌아가신 한분 한분을 기억했다. 고인들의 가족들을 환영하며 한자리에 모인 모습에 그분들도 결코 외롭지 않은 반가운 자리였으리라 생각된다.

이 날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뷔페와 제사상의 차례음식들로 즐겁고 풍요로운 시간을 오랜만에 가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레크레이션시간을 가지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 우정을 다지는 데 좋은 시간이었다. 끝으로 추기경께서 우리 감염인들과 가족들 모두와 나누었던 말씀을 함께 되새겨 본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면서도 세상 모든 이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시간에 그분을 가장 괴롭힌 것은 모두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 믿고, 그 분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반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만이



“감염인·환자 한분, 한분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시다시피 이분들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감염인·환자들이 오늘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의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분들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분들을 멀리하면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재판받는 마당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이파들과 율법학자들의 선동에 따라 예수님을 죽을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중 하나인 유다스가 그들은 전 30냥에 원수를 손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는 “어떤 처지가 되어도 죽음의 위험이 있다하여도 결코 스승을 배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장담한 것과는 달리 바로 그 수난의 시간에는 세 번씩이나 그를 모른다고 배반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보다 앞서 다 도망치고 숨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로부터도 버림 받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까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있어서 수난의 시간에 겪어야 할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고통이 너무나 큰 나머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셨습니다. 처절하게 외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 고통마저도 결국 받아들여시고 “마침내”하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리는 형제자매들에 앞서서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소외와 고독 속에, 고통 속에 버림받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우리가 기리는 형제자매들에게 가장 닮은 분이십니다. 뿐더러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 특히 마태오 25장에 나오는 말씀 “이 미소한 형제 하나에 비 해준 것은 곧 나에게 비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는 말씀에 비추어보면, 예수님은 이 병고를 앓고 있는 이들, 병고와 소외와 고독 속에 버림받고 있는 이들과 내적으로 하나 되어 계십니다.

이분들 한분, 한분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시다시피 이분들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분들이 오늘의 예수님이십니

다. 오늘의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분들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분들을 멀리하면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 미소한 형제 하나에 비 해준 것이 곧 나에게 비 해 준 것이다.” 반대로 “그 미소한 형제에 비 해주지 않은 것은 곧 내 비 하지 않은 것이다(마태 25,45).” 이처럼 예수님과 이 분들, 또는 버림받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의 관계는 깊습니다. 따라서 이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당신들과 함께 그 고통과 고독 속에 계시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빕니다. 2005. 9. 김수환 추기경

* 본문 사진은 에이즈 사목 활동중인 분들이 게시 인물을 표리해 처리했습니다